

##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격성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유지혜 (劉知慧)\*

유혜승 (柳慧承)\*\*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떠한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한 조사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5년 6차년도 중학교 1학년 패널자료이며, 최종분석 대상에는 총 2,014명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우울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공격성은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우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우울이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변인으로서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우울은 공격성을 강화시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발생시키며, 자아탄력성을 감소시켜 학교적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자아탄력성 강화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우울, 학교적응, 공격성, 자아탄력성, 구조방정식모형

\* 제1저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연구강사

\*\*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 I. 서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적응은 중요한 발달과업인 동시에 이후 성인기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Calentino, Haggerty, Oesterle, Fleming & Hawkins, 2004). 학교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사회적 관계맺음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만큼 학교에서의 적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업을 비롯한 대인관계 및 심리적·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나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우울 및 자살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2017)에 따르면, 2016년 초·중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47,663명으로 전체 재적학생 대비 학업중단율은 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학업중단율을 보면, 초등학교 14,998명(0.6%), 중학교 8,924명(0.6%), 고등학교 23,741명(1.4%)으로 중학교는 전년 수준이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전년 대비 각각 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시도별 학업중단현황」 자료에 따르면, 13만 7000명에 이르는 고등학생들이 자퇴, 퇴학, 제적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사유로는 학교부적응, 질병,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퇴가 5개년 평균 96%로 가장 높았으며, 자퇴 사유의 절반 이상(52%)이 학습부진 등의 학업문제와 따돌림, 학교폭력 등 대인관계로 인한 학교부적응인 것으로 나타났다(에듀동아, 2017).

이처럼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도 탈락하거나 품행문제, 정신건강 문제, 심한 경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등 학교부적응 문제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업중단이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정서적 문제 중 하나인 우울은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청소년기 우울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연, 전종철, 2015; 박정현, 이미숙, 2014; 이귀옥, 이미리, 2013; Fergusson & Woodward, 2002). 청소년의 우울은 높은 스트레스 및 불안 수준, 낮은 자존감, 학업부진 등과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Caldwell, Zimmerman, Bernat, Sellers & Notaro, 2002). 또한 우울한 청소년들은 또래 및 교사 등 주변사람들과도 원만한 관계형성을 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수행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용태, 황순택, 2016).

공격성 또한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Graham,

Bellmore & Mize, 2006).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대인관계에서 적대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또래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 공격성은 비행, 무단결석, 폭력, 자해, 자살시도 등의 반사회적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며, 이는 학교부적응 뿐만 아니라 사회부적응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김소연, 전종설, 2015;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청소년기 공격성은 우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우울이 공격성을 통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유라, 노충래, 2014;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우울과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이라면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박연우, 김경희, 2015). 자아탄력성은 위기나 역경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반응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래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Block & Kremen, 1996; Wright, Masten & Narayan, 2013),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운, 최미숙, 2014; 이영애, 정현희, 2016). 또한 자아탄력성은 우울이나 공격성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 수준이 낮고, 공격성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며(이다경, 염시창, 2015), 우울을 억제하는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영아, 201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우울, 공격성, 자아탄력성 등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그 관계를 살펴본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일부 변인의 일차적인 관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어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울, 공격성,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 간의 이론적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들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청소년기 학교적응

학교적응에 대한 관점이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학생들이 학교의 규범 및 질서를 준수하고 수업 참여도가 높으며, 교우 및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양은별, 김태우, 박은혜, 이소연, 정

익중, 2015; 이정윤, 이경화, 2004).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이규미(2005)의 연구는 학교공부, 친구관계, 교사관계, 질서 및 규칙 준수, 학교생활 만족과 같은 학교생활 요인을 학교적응과 관련한 중요 영역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구은미 등(2016)의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필요한 역량 요소로 성장성공, 진로적성, 지지존중, 관계소통, 학습, 자기조절과 통제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학교적응의 구성요소에 대한 관점은 연구자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학업성취, 수업참여도, 문제행동,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이 학교적응의 주요한 요소로 간주된다(이규미, 2005).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학교적응을 학습활동 참여 수준(수업참여도)과 학교규칙 준수 정도, 그리고 교우 및 교사 관계가 원만한 정도로 개념화하였다.

## 2. 우울, 공격성,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관계

### 1) 우울과 학교적응

청소년기에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정서적 문제인 우울은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격성이나 자아탄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주연, 장성화, 2013; 하문선, 2016; 홍태화, 황순택, 2015). 청소년기 우울은 흔히 학업부적응과 동기 감소, 지속적 슬픔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무단결석, 반항행동, 가출 등 다양한 부적응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김명식, 2008). 성인의 우울은 내현화된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청소년기 우울은 반항적이거나 충동적인 외현화된 양상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가면성 우울증(masked depression)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송아랑, 신호정, 2015).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우울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소연, 전종철, 2015; 이귀옥, 이미리, 2013). 중학생을 대상으로 우울-적응 모형을 검증한 결과 우울증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학교적응 중에서도 학교생활과 학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식, 2008). 김소연과 전종철(2015)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우울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희(2010)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우울은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리적 안녕감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순과 옥지원(2012)은 청소년의 충동성과 우울이 학교생활적응과 역상관 관계가 있으며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우울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습득욕구가 낮고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소연, 전종철, 2015; Fergusson & Woodward, 2002).

한편, 학교적응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도 있다(박정현, 이미숙, 2014; Bernaras, Jaureguizar, Soroa, Ibabe & Cuevas, 2011). 박정현과 이미숙(2014)은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적응을 잘할수록 우울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중에서 또래관계, 교사관계, 학교수업은 우울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학교규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선숙 등(2010)도 학교친구적응, 학교교사적응, 학교환경적응 등과 같은 학교적응 수준은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일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 2) 공격성과 학교적응

공격성은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비행 등의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Graham et al., 2006).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외현화 문제 중의 하나인 공격성은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의도된 행동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된다(하문선, 2016; Anderson & Bushman, 2002).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기 공격성과 학교적응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박미향, 김완일, 2014; 신현숙, 곽유미, 김선미, 2012; Conner, Swogger & Houston, 2009).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또래집단이나 교사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생활 및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김소연, 전종설, 2015; 우유라, 노충래, 2014; Mercer & DeRosier, 2008). 또한 공격성이 높은 청소년은 부모-자녀관계도 원만하지 못하며 공격성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학교부적응과 학업부진뿐만 아니라 비행, 반사회적 행동, 학교폭력, 자해, 자살시도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신현숙 외, 2012).

공격성은 학업성취 및 인지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ub, McCartney & Willett, 2007), 분노,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유라, 노충래, 2014; Hale, Vlk, Akse & Meeus, 2008). 박미향과 김완일(2014)은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공격성, 적대감, 분노감이 학교생활 적응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공격성이 높을수록 자존감 수준이 낮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Virgil, Brian, Christopher & Ashton, 2014).

### 3)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자아탄력성은 위기나 역경 상황에서 경직되지 않고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래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역동적 능력을 의미한다(Block & Kremen, 1996; Wright, Masten & Narayan, 2013). 자아탄력성은 위기상황에서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여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상쇄시키고 빠른 회복을 매개한다(한병래, 방은령, 2017; Tugade & Fredrickson, 2004). 따라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며, 위기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적응하며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구형모, 황순택, 김지혜, 2001; 유성경, 심혜원, 2002; Masten, 2001).

자아탄력성은 부적응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박연우, 김경희, 2015).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며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영경, 김영희, 황성실, 2011; 신수지, 손은령, 2017; 이영애, 정현희, 2016; Frederick, Samuel, Genevieve, Serge & Natasha, 2011). 또한 자아탄력성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매개로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김중운, 최미숙, 2014; 노미화, 허미정, 최연실, 2015),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또래관계에서 공감을 잘하고 적절한 정서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문경, 2015; Klohnen, 1996).

### 4) 우울과 공격성, 자아탄력성의 관계

우울, 공격성, 자아탄력성은 개별적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각 요인들 상호간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우울과 공격성은 상호 유의미한 관계가 있으며 공존하여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Fung, Gerstein, Chan, & Engebretson, 2015; Hale et al., 2008). 그동안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간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 연구마다 상반된 견해가 있어 왔다. Wolff와 Ollendick(2006)은 우울한 청소년의 기질적 과민성이 정서 및 행동통제를 어렵게 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갈등을 야기하여 공격성이 유발된다고 주장하였으며, Ferguson 등(2012)도 우울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우울이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울이 공격성을 통해 청소년 비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한편, 공격성이 우울의 선행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 연구들도 있다. Donnellan 등(2005)은 청소년기의 공격적인 행동이 우울, 분노, 자존감 저하, 대인관계 문제, 학업부진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미정(2009)은 청소년의 공격성이 또래 거부나 원만하지 못한 또래관계를 야기하고 이것이 자신 및 미래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져 우울이나 불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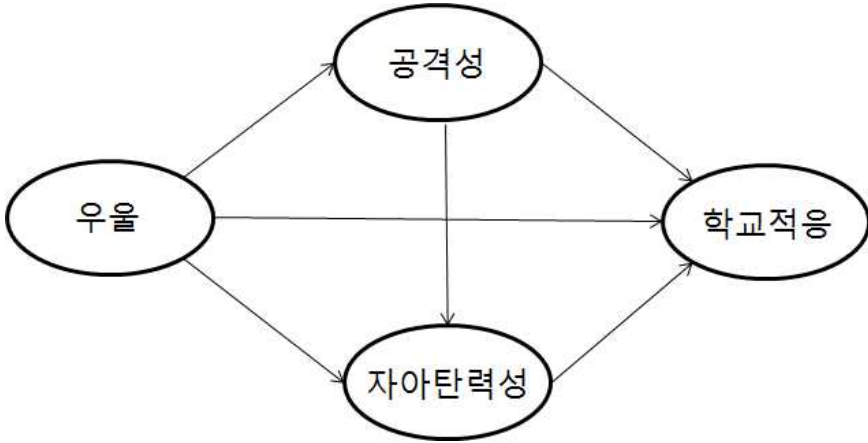
더욱 취약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우울과 공격성 간의 방향성에 대해 서로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청소년기의 우울과 공격성은 연속성을 바탕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동반장애(comorbidity)의 특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Marshall et al., 2015; Smokowski et al., 2017). Smokowski 등(2017)의 연구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격성 수준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격성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재화 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증상은 공격성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이며, 공격성 또한 내재화 증상의 가장 중요한 예측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홍태화와 황순택(2015)도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간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한 연구에서 우울과 공격성의 관계는 일방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울의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하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 또한 증가하는 것과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양방향적인 관계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우울과 공격성은 자아탄력성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Liu 등(2015)은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Fredrickson과 Branigan(2005)은 자아탄력성이 긍정정서를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은 우울과 공격성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고(이다경, 엄시창, 2015),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윤미, 2017).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유능감 수준이 높고 우울 및 불안 수준은 낮으며(이영아, 2011),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계연, 이은희, 2007; 한신애, 문수백, 2011).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감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2015년도 중학교 1학년 패널 자료를 분석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표본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단계화집락표집 방법으로 추출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에 걸친 추적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6차년도 중1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에 해당한다. 중1 표본 자료는 78개 학교의 2,351명을 대상으로 하며,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총 2,01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1) 우울

간이정신진단검사(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중 우울척도 13문항에서 3문항을 제외하고 총 10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하여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79이다.



## 2) 공격성

조봉환,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에서 공격성에 해당하는 6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하여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797이다.

## 3) 자아탄력성

Block &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 심혜원(2002)이 번역한 뒤 수정·보완한 14문항(권지은, 2003에서 재인용)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 낸다',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하여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49이다.

## 4) 학교적응

민병수(1991)가 제작한 초등학생용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정화실, 2009에서 재인용) 중 4개의 하위요인(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20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학교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학급당번 등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한다',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역코딩을 하여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29이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SPSS 18.0을 이용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AMOS 18.0을 이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모수추정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붓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

을 이용하여 변인 간 직·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 내 매개경로의 효과 및 유의성 검증은 Sobel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 IV. 연구 결과

###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각 연구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와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우울, 공격성, 자아탄력성에 대한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를 제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4를 넘지 않아 정규분포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주환, 홍세희, 김민규, 2009).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우울( $r=-.319$ ,  $p<.01$ )과 공격성( $r=-.333$ ,  $p<.01$ )은 학교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아탄력성( $r=.449$ ,  $p<.01$ )은 학교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울은 공격성( $r=.526$ ,  $p<.01$ )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자아탄력성( $r=-.367$ ,  $p<.01$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성은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부적상관( $r=-.195$ ,  $p<.01$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1-1	1-2	1-3	2	2-1	2-2	2-3	3	3-1	3-2	4	4-1	4-2	4-3	4-4
1																
1-1	.913**	1														
1-2	.909**	.708**	1													
1-3	.841**	.673**	.696**	1												
2	.526**	.474**	.469**	.472**	1											
2-1	.341**	.320**	.301**	.285**	.842**	1										
2-2	.458**	.411**	.424**	.387**	.871**	.607**	1									
2-3	.550**	.483**	.476**	.538**	.833**	.511**	.624**	1								
3	-.367**	-.345**	-.343**	-.275**	-.195**	-.102**	-.197**	-.203**	1							
3-1	-.247**	-.231**	-.236**	-.178**	-.054*	.003	-.067**	-.078**	.886**	1						
3-2	-.404**	-.382**	-.372**	-.310**	-.291**	-.183**	-.282**	-.280**	.890**	.577**	1					
4	-.319**	-.266**	-.332**	-.244**	-.333**	-.244**	-.344**	-.263**	.449**	.294**	.503**	1				
4-1	-.256**	-.225**	-.276**	-.199**	-.230**	-.183**	-.226**	-.178**	.301**	.203**	.331**	.799**	1			
4-2	-.131**	-.090**	-.161**	-.092**	-.266**	-.201**	-.289**	-.189**	.239**	.133**	.291**	.740**	.443**	1		
4-3	-.351**	-.303**	-.349**	-.279**	-.364**	-.243**	-.376**	-.315**	.457**	.272**	.537**	.717**	.402**	.431**	1	
4-4	-.205**	-.181**	-.200**	-.162**	-.125**	-.088**	-.127**	-.106**	.354**	.276**	.352**	.651**	.381**	.227**	.360**	1
<b>왜도</b>	.218	.098	.443	.409	.092	.105	.230	.311	.496	.162	.406	.234	-.224	-.198	.329	-.421
<b>첨도</b>	-.329	-.412	-.118	-.348	-.429	-.382	-.391	-.464	.481	.265	.354	.768	.836	1.198	.460	.326
<b>M</b>	1.872	2.013	1.746	1.845	1.925	2.102	1.866	1.807	2.893	2.793	2.968	2.903	2.724	3.027	3.141	2.720
<b>SD</b>	.544	.615	.569	.669	.528	.661	.599	.608	.405	.529	.402	.335	.538	.493	.380	.417

주: 1-우울 1-1:우울1 1-2:우울2 1-3:우울3 2:공각성 2-1:공각성1 2-2:공각성2 2-3:공각성3 3:자아탄력성 3-1:자아탄력성1 3-2:자아탄력성2 4:학교적응 4-1:학습활동 4-2:학교규칙 4-3:교우관계 4-4:교사관계  
\*p<.05, \*\*p<.01

## 2.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657.258(df=48, p<.001)$ , TLI=.913, CFI=.937, RMSEA=.079(90% CI=.074-.085)로 측정모형이 본 연구 자료에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설명계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측정변인의 잠재변인에 대한 표준화된 계수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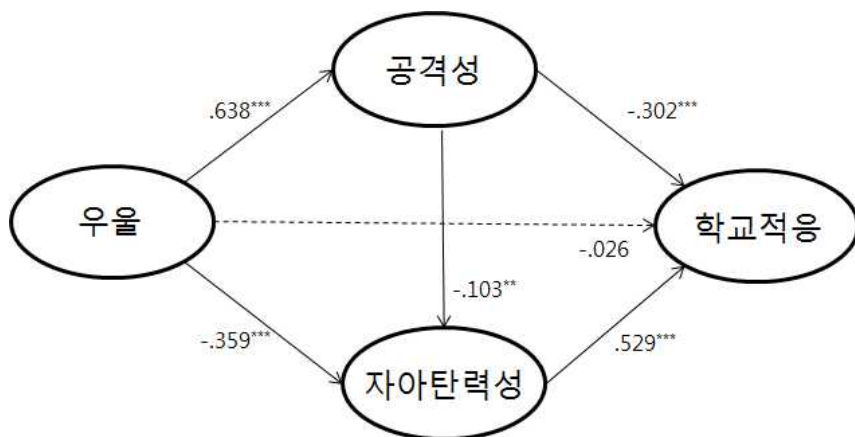
<표 2> 측정변인에 대한 잠재변인의 설명계수

잠재변인	측정변인	B	$\beta$	S.E.	t
우울	우울1	1.000	.832		
	우울2	.949	.853	.022	42.169***
	우울3	1.061	.811	.026	40.093***
공격성	공격성1	1.000	.684		
	공격성2	1.099	.828	.037	29.686***
	공격성3	1.044	.775	.036	28.838***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1	1.000	.573		
	자아탄력성2	1.337	1.008	.072	18.574***
학교적응	학습활동	1.000	.583		
	학교규칙	.875	.557	.046	18.869***
	교우관계	.940	.776	.042	22.516***
	교사관계	.651	.490	.038	17.177***

\*\*\*  $p < .001$

## 3. 구조모형 분석

청소년의 우울이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따라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그림 2]와 같다.



\*\*  $p < .01$ , \*\*\*  $p < .001$

[그림 2] 구조모형

본 연구의 구조모형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모형적합도 지수 TLI=.913, CFI=.937로 .90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RMSEA=.079로 .08보다 적게 나타나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구조모형 적합도

	$\chi^2$	df	TLI	CFI	RMSEA
구조모형	657.258***	48	.913	.937	.079

\*\*\*  $p < .001$

모형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모형을 통해 변인 간 모수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우울→학교적응을 제외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탄력성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공격성( $\beta=.638$ ,  $p < .001$ )에는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자아탄력성( $\beta=-.359$ ,  $p < .001$ )에는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대해 공격성( $\beta=-.302$ ,  $p < .001$ )은 유의미한 부적영향을, 자아탄력성( $\beta=.529$ ,  $p < .001$ )은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격성은 자아탄력성( $\beta=-.103$ ,  $p < .001$ )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4&gt;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i>B</i>	$\beta$	S.E.	t
우울→공격성	.563	.638	.026	22.077***
우울→자아탄력성	-.284	-.359	.025	-11.405***
우울→학교적응	-.016	-.026	.021	-.751
공격성→자아탄력성	-.093	-.103	.029	-3.239**
공격성→학교적응	-.210	-.302	.025	-8.522***
자아탄력성→학교적응	.410	.529	.032	12.969***

\*\*  $p < .01$ , \*\*\*  $p < .001$

구조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지만 간접효과가 -.417로 나타나 청소년의 우울은 공격성 및 자아탄력성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격성은 학교적응에 직접효과(-.302)와 간접효과(-.055)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효과가 간접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lt;표 5&gt; 주요 변인들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우울	공격성	.638**	.000	.638**
우울	자아탄력성	-.359**	-.066**	-.425**
우울	학교적응	-.026	-.417**	-.444**
공격성	자아탄력성	-.103**	.000	-.103**
공격성	학교적응	-.302**	-.055**	-.357**
자아탄력성	학교적응	.529**	.000	.529**

\*\*  $p < .01$

변인 간 개별 경로에서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은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각각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이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을 거쳐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6> 구조모형 내 매개경로의 효과

경로	Z
우울→공격성→학교적응	-7.830***
우울→자아탄력성→학교적응	-8.499***
우울→공격성→자아탄력성→학교적응	-3.080**

\*\*  $p < .01$ , \*\*\*  $p < .001$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격성 및 자아탄력성이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제시된 6개의 경로 중 우울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한 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이 학교적응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울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기존의 연구(김소연, 전종철, 2015;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 2017; Fergusson & Woodward, 2002)와는 다른 결과로 청소년의 우울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공격성, 자아탄력성과 같은 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은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아지며, 이는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공격성의 기저에 가면화된 우울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우울은 심리적, 사회적으로 소극적이며 위축된 행동을 보여주기 보다는 공격적 사고 및 행동을 나타내는 형태로 발현되고 있다.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이다경, 염시창, 2015; 정주영, 2014; 홍태화, 황순택, 2015)에서도 우울은 공격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격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공격성은 학교에서 또래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며(박성연, 강지훈, 2005), 학업성취에도 문제를 발생시키는 등(문명현, 이윤주, 2016)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다.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부적응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소연, 전종철, 2015; 김준범, 정지영, 2017; 우유라, 노충래, 2014;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Troop-Gordon, Visconti, & Kuntz, 2011)에서 또한 평균 이상의 공격성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출석을 거부하고 낮은 학업성취를 나타내는 등의 학교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우울이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우울과 학교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밝힌 연구(이익섭, 최정아, 2008)의 결과를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우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지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울이 스트레스나 역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인 자아탄력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황윤미, 2017; Liu, Chang, Wu & Tsai, 2015)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인 중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강부자, 김은혜, 노충래, 2012; 박상희, 2009; 박영아, 2014)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우울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는 학생들도 이를 적절히 통제하고 융통성 있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인 자아탄력성이 높을 경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아탄력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유연하게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유성경, 심혜원, 2002)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적응 향상을 돕는 기재로서 자아탄력성의 기능을 확인한 것으로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우울이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준의 우울은 공격성을 증가시키며 자아탄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공격성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격성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감소하며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이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현우, 이계행, 2014)와 또한 공격



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아탄력성을 통하여 미치는 간접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직접효과가 간접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격성이 높은 경우에 자아탄력성이 공격성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기능을 하나 여전히 학교적응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 정서 및 태도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경로에서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변인으로서의 기능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을 발견하였으며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개입전략 수립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이라는 부정정서 자체가 직접적으로 학교적응에 문제를 유발하기 보다는 우울이 공격적인 정서와 행동을 강화시키고 자아탄력성을 저하시킴으로써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과 공격성으로 인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아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문적, 실제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외적 변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아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동시에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허정선, 전순영, 2013)을 통하여 부정적인 정서 경험이나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교내 및 교외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최형임, 이재성, 문영경, 2012).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의 1개년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패널데이터는 매년 동일한 변인에 대한 조사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본 연구변인을 포함하고 있는 해당년도의 데이터만 사용하였다. 횡단연구는 특정 시점에서 한 번의 측정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기에 연구변인들의 진행과정이나 변화를 측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단연구방법을 도입하여 실시한다면 학생들의 학교적응 정도가 초·중·고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우울, 공격성, 자아탄력성의 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써 학생의 우울, 공격성, 자아탄력성과 같은 심리내적 변인만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학업, 또래 및 교사 관계 등을 포함하는 학교생활 적응이라는 변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학생 개인을 둘러싼 맥

락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별, 학년, 가족, 학교 등의 변인의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기 위한 보다 다양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해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적응을 잘 하기 위해 자아탄력성 수준 향상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자아탄력성 변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며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및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부자, 김은혜, 노충래(2012). 한부모가정의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부자-모자가정의 비교. **학교사회복지**, 23, 29-50.
- 강승희(2010). 중학생의 부, 모애착, 우울, 심리적 안녕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1-29.
- 교육부(2017). 2017년 교육기본통계 발표. 교육부 교육통계담당관실 보도자료.
- 구은미, 방영숙, 최선미(2016).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신뢰 타당도 분석 연구. **청소년학연구**, 23(4), 199-218.
- 구형모, 황순택, 김지혜(2001). 자아탄력성집단의 성격특질.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3), 569-581.
- 김명식(2008). 일 도시의 남녀 중학생 우울증 유병율과 우울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2), 645-658.
- 김소연, 전종설(2015).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6(4), 193-208.
- 김은영, 김경식(2017). 청소년기 우울의 비전형성에 대한 연구: 공격성을 중심으로. **교육치료연구**, 9(2), 291-307.
- 김종운, 최미숙(2014).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희망, 또래관계기술의 구조적 관계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2(1), 201-226.
- 김준범, 정지영(2017). 성장기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공격성과 학교부적응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교정복지연구**, 49, 1-30.
- 김현우, 이계행(2014). 고등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여와 공격성 및 자아탄력성의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0), 479-499.
- 노미화, 허미정, 최연실(2015).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배려심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2), 119-134.
- 문명현, 이윤주(2016). 청소년의 우울/불안, 공격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6), 175-200.
- 박미향, 김완일(2014). 청소년의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0), 475-501.
- 박병선, 배성우, 박경진, 서미경, 김혜지(2017). 청소년의 또래애착, 사회적 위축, 우울, 학교생활 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보건사회연구**, 37(2), 72-101.

- 박상희(2009).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 실패내성, 학교적응 관계 연구. **초등교육학연구**, 16(2), 59-81.
- 박성연, 강지훈(2005). 남·여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6(1), 1-14.
- 박연우, 김경희(2015). 남자 고등학생들의 삶의 질,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 221-232.
- 박영아(2014).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에 의한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5(3), 1-14.
- 박정현, 이미숙(2014). 전환기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지지, 부모감독, 친구지지의 중재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3), 45-63.
- 서미정(2009).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와 비행, 우울/불안 및 학업 성취감: 잠재성장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0(2), 141-167.
- 소선숙, 송민경, 김청송(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학교적응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7(3), 1-23.
- 송아랑, 신호정(2015). 학교적응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또래갈등해결전략의 조절효과. **발달지원연구**, 4(1), 21-38.
- 송영경, 김영희, 황성실(2011).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0(1), 1-19.
- 신수지, 손은령 (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청소년학연구**, 23(12), 25-45.
- 신용태, 황순택(2016).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통한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인과관계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8(2), 1-19.
-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 신경수(2004). 비행 청소년의 생활적응문제에서 우울/불안 및 공격성의 합병 효과와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91-510.
- 양은별, 김태우, 박은혜, 이소연, 정익중(2015).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청소년 및 가정외보호청소년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1, 311-331.
- 에듀동아(2017.10.08.). 최근 5년간 학업중단 고교생 14만 명에 달해. <http://edu.donga.com/>에서 2017년 10월 8일 인출.
- 우유라, 노충래(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유성경, 심혜원(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이규미(2005). 중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83-398.

- 이귀옥, 이미리(2013).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 변인 탐색. **생애학회지**, 3(1), 13-28.
- 이다경, 염시창(2015). 청소년이 지각한 애정적 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중다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2), 277-298.
- 이영아(2011). 여성의 완벽주의 성향과 우울에 미치는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4), 517-530.
- 이영애, 정현희(2016).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7(2), 187-214.
- 이익섭, 최정아(2008).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학교부적응 간의 경로 분석: 우울 및 공격성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6(1), 47-58.
- 이정숙, 구형선, 조인주(2013). 대학생의 성장기 아동학대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관계 분석: 가족지지, 친구지지,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1), 143-168.
- 이정윤, 이경아(2004). 초등학교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16(2), 261-276.
- 이주연, 장성화(2013). 청소년의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 4(1), 41-53.
- 이혜순, 옥지원(2012). 청소년의 충동성, 자아존중감, 우울수준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 438-446.
- 정문경(2015).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11), 137-162.
- 정주영(2014). 부모-자녀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우울, 분노를 매개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5(2), 237-263.
- 조계연, 이은희(2007). 초기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부모의 양육행동, 가족건강성과 문제행동간의 관계에서의 매개역할. **한국청소년연구**, 18(1), 79-106.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2011).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1-148.
- 하문선(2016). 청소년의 공격성과 우울의 동반 현상에 따른 잠재집단 양상: 로그선형모형에 의한 확인적 잠재집단분석의 적용. **아시아교육연구**, 17(1), 67-100.
- 한병래, 방은령(2017).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 부모역할책임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8), 273-304.
- 한신애, 문수백(2011). 학령기 아동의 학교적응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미래유아교육**

학회지, 18(3), 355-376.

- 홍태화, 황순택(2015).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우울과 공격성 간의 종단적 관계 검증. *청소년학연구*, 22(11), 545-568.
- 황윤미(2017). 아동의 우울이 공격성과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만족의 조절효과. *임상사회 사업연구*, 14(1), 51-70.
- Anderson, C. A., & Bushman, B. J. (2002). Human aggression. *Psychology*, 53(1), 27-51.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ub, K. L., McCartney, K., & Willett, J. B. (2007). Behavior problem trajectories and first-grade cognitive ability and achievement skills: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3), 653-670.
- Caldwell, C. H., Zimmerman, M. A., Bernat, D. H., Sellers, R. M., & Notaro, P. C. (2002). Racial identity, matern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73(4), 1322-1336.
- Calentano, R. F., Haggerty, K. P., Oesterle, S., Fleming C. B., & Hawkins, J. D. (2004). The importance of bonding to school for health development: Findings from the 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 *Journal of School Health*, 74(7), 252-261.
- Donnellan, M. B., Kali, H., Trzesniewski, K., Robins, R., Moffitt, T., & Caspi, A.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235.
- Ferguson, C. J., Miguel, C. S., Garza, A., & Jerabeck, J. M. (2012). A longitudinal test of video game violence influences on dating and aggression: A 3-year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6(2), 141-146.
- Fergusson, D. M., & Woodward, L. J. (2002). Mental health, educational, and social role outcomes of adolescents with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9(3), 225-231.
- Fredrickson B. L., & Branigan C. A. (2005). Positive emotions broaden the scope of attention and thought-action repertoires. *Cognition and Emotion*, 19(3), 313-332.
- Fung, A., Gerstein, L., Chan, Y., & Engebretson, J. (2015). Relationship of aggression to anxiety, depression, anger, and empathy in Hong Kong. *Journal Child Family Studies*, 24, 821-831.
- Graham, S., Bellmore, A. D., & Mize, J. (2006). Peer victimization, aggression, and their

- co-occurrence in middle school: Pathways to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3), 349-364.
- Hale, W. W., Vlk, I. V., Akse, J., & Meeus, W. (2008). The interplay of early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aggression and perceived parental rejection: A four-year community study.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7(8), 928-940.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5), 1067-1079.
- Knox, M., King, C., Hanna, G. L., Logan, D., & Ghaziuddin, N. (2000). Aggressive behavior in clinically depress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9(5), 611-618.
- Liu, J. C., Chang, L. Y., Wu, S. Y., & Tsai, P. S. (2015). Resilience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health status in patients with heart failure: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52(12), 1846-1853.
- Marcotte, D., Fortin, L., Potvin, P., & Papillon, M. (2002).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during adolescence: Role of gender-typed characteristics, self-esteem, body image, stressful life events, and pubertal statu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10(1), 29-42.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Mercer, S. H., & DeRosier, M. E. (2008). Teacher preference, peer rejection, and student aggression: A prospective study of transactional influence and independent contributions to emotional adjustment and grade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6), 661-685.
- Marshall, N. A., Arnold, D. H., Rolon-Arroyo, B., & Griffith, S. F. (2015). The association between relational aggression and internalizing symptoms: A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4(2), 135-160.
- Smokowski, P. R., Guo, S., Evans, C. B., Wu, Q., Rose, R. A., Bacallao, M., & Cotter, K. L. (2017).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cross multiple microsystems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symptoms and aggressive behavior in rural adolescents: Modeling longitudinal trajectories from the Rural Adaptation Proj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7(1), 94-108.
- Troop-Gordon, W., Visconti, K. J., & Kuntz, K. J. (2011). Perceived popularity during early adolescence: Links to declining school adjustment among aggressive youth.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1(1), 125-151.

- Tugade, M. M., & Fredrickson, B. L. (2004). Resilient individuals use positive emotions to bounce back from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2), 320-333.
- Virgil, Z., Brian, E., Christopher, J. H., & Ashton, C. S. (2014). Using self-esteem instability to disentangle the connection between self-esteem level and perceived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9, 47-51.
- Wolff, J. C., & Ollendick, T. H. (2006). The comorbidity of conduct problems and depress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9(3-4), 201-220.
- Wright, M. O., Masten, A. S., & A. J. Narayan. (2013).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Four waves of research on positive adaptation in the context of adversity. In S. Goldstein & R. B. Brooks. *Handbook of Resilience in Children*.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논문접수 2018년 2월 2일 / 1차 심사 2018년 3월 9일 / 게재승인 2018년 3월 22일

\* 유지예: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 박사통합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실 연구강사로 재직 중이다.

\* E-mail: mededu8106@gmail.com

\* 유혜승: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림대학교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강사로 재직 중이다.

\* E-mail: ysepsy@yonsei.ac.kr



## Abstract

##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Yu, Ji Hye\*

Yoo, Hye-Seung\*\*

This study set up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identify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ich psychological mechanisms affect school adaptation, and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ego-resilience. The current study analyzed 2,014 data of high school senior students taken from the Korea Children Youth Panel Survey (KCYP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youth aggression showe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Second, ego-resilience has shown that it h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Third, youth depress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school adaptation by sequentially mediating aggression and ego-resilience. This study provides the role of aggression and ego-resilience as mediating variables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and identify the importance of ego-resilience to adapt well to school.

Key words: depression, school adaptation, aggression, ego resilience, structural equation models

---

\* First author, Research fellow, Medical education office,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Corresponding author, Lecturer, Department of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